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는 「~てしまう」*

김희성**

〈 Abstract 〉

Te shimau: a form to indicate a spontaneous situation

This paper aims to argue that 'te shimau' has a usage to express a spontaneous situation and examine its semantic and syntactic features. The spontaneous situation represented by 'te shimau' refers to any situation or condition where an event occurs on its own without the intention of its subject. This spontaneous situation has a semantic feature that the event occurs habitually or repeatedly. The spontaneous situations represented by 'te shimau'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type of verb to be connected to 'te shimau'. The first is the type representing the unintentional behaviors, in which volitional verbs usually appear but the intention of its subject is weakened by 'te shimau'. The second is the type representing the unintentional states, in which unvolitional verbs such as emotional verbs and sensory verbs appear. The third is the type representing the inevitable results, in which unvolitional verbs usually appear. The 'te shimau' construction expressing a spontaneous situation has three syntactic features. The first is that it is the productive expression that is not limited by the types of verb. The Second, the 'ru' form of verbs is usually used. Third, it appears mainly with certain adverbs.

Field : syntax

Keywords : Te shimau, spontaneous situation, Unintentional behavior, Unintentional state, Inevitable result

1. 머리말

현대 일본어의 「~てしまう」는 아스펙트적 의미와 모달리티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다음 (1)에서는 책을 읽는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2)에서는 실현된 사태가 유감스럽다고 하는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1) その本を全部読んでしまった。
- (2) 交通事故で死んでしまった。

그렇다면 다음 (3)에서 「~てしまう」는 아스펙트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모달리티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62947)

** 광운대학교 강사, 일본어학

- (3) a. お腹が空いてないけど、何だか口寂しいとかの理由で、なんとなく食べてしまう。「Y」
 b. パソコンでいろいろ作業していると、操作を間違ってしまう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¹⁾「Y」

(3a)에서는 주어가 먹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먹게 된다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3b)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조사를 실수하게 된다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3)에서는 주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저절로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는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 본 논문에서는 「~てしまう」에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음을 밝히고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는 「~てしまう」의 의미적 특징과 구문적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더불어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는 「~てしまう」의 용법이 「~てしまう」의 아스펙트적 의미와 모달리티적 의미의 양 측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てしまう」는 金田一(1954)에서 「終結態」와 「既現態」를 나타내는 아스펙트 형식으로 분류한 이래 아스펙트 형식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金田一(1954)에 이어 高橋(1969)에서는 「~てしまう」에 아스펙트적 의미 이외에도 「予期しなかったこと、よくないことが実現することをあらわす」라는 모달리티적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 후 「~てしまう」의 아스펙트적 의미와 모달리티적 의미를 둘러싸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어느 쪽의 의미가 기본적 의미이며 어느 쪽의 의미가 기본적 의미로부터 파생된 의미인지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는 보류하고 「~てしまう」에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음을 밝히고 그와 같은 용법이 「~てしまう」의 아스펙트적 측면과 모달리티적 측면의 양 측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하 2.1절, 2.2절에서는 「~てしまう」가 나타내는 자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てしまう」의 동사의 무의지화 기능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吉川(1971), 森山(1988), 杉本(1991)을 검토하고자 한다.

2.1 吉川(1971)

吉川(1971)은 「~てしまう」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4) a. ある過程を持つ動作がおしまいまで行われることをあらわす。
 例) ぜんぶの組がことばを送ってしまうと、組のおわりの人が、書いた紙を読みあげた。
 b. 積極的に動作に取り組み、これをかたづけることをあらわす。
 例) 殺し屋を雇うて金沢へやり、相手をあっさり消してしまうんや。

1)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문은 다양한 분야의 현대 일본어 문어 코퍼스인 KOTONOHO 「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와 일본의 최대 검색 포털인 www.yahoo.co.jp에서 수집하였다. 이하 각 예문에 양자를 각각 「K」 「Y」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작품명과 웹사이트 주소는 생략한다.

2) 이와 같은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는 「~てしまう」는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해 버리다」 「하고 말다」로 옮기면 어색한 문장이 되며 「하게 된다」로 번역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 c. ある動作・作用が行われた結果の取りかえしが見つからないという気持ちをあらわす。
 例) 目標の灯は、どこかに消えてしまった。
- d. 動作が無意識的に行われることをあらわす。
 例) i. みんな、あわててしまいました。
 ii. そう思うと、ぼくは思わず立ち止まってしまいました。
 e. 不都合なこと、期待に反したことが行われることをあらわす。
 例) i. 初めに竹の節をくりぬいて作りましたが、竹では水にういてしまうのでブリキにしました。
 ii. そのとき、ぼくの持っていた黒板ふきが、とんでしまいました。
- e. 不都合なこと、期待に反したことが行われることをあらわす。
 例) i. 初めに竹の節をくりぬいて作りましたが、竹では水にういてしまうのでブリキにしました。
 ii. そのとき、ぼくの持っていた黒板ふきが、とんでしまいました。

吉川(1971:pp.228-230)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용법은 (4d)의 동작의 무의지화의 용법이다. (4d)의 (i)은 「あわてる」와 같이 무의지적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 접속하여 무의지적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원래의 동사에 의지성이 없으므로 「~てしまう」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는 그다지 높게 평가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예는 의미적 일치(sematic concord)의 예라고 설명하고 있다. (i)에는 주로 생리적 동작(「あせかく・せきこむ・はきだす」, 심리적 동작(「しょんぼりする・ゾクゾクする・びっくりする」), 정신적 동작(「おもいこむ・なれる」) 등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접속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반면 (ii)는 의지적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 접속하여 무의지적 동작으로 변화시키는 경우이다. 「立ち止まる」는 의지적 동작으로도 무의지적 동작으로도 해석 가능하지만 부사 「思わず」 등의 문맥과 「~てしまう」에 의해 무의지적 동작임이 명확해지는데 이러한 경우 「~てしまう」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가 높게 평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4d)의 「~てしまう」의 무의지화 용법은 유정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 한하여 적용됨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 (5)는 무의지적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 접속하는 경우이며 (6)은 의지적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 접속하는 경우이다.

- (5) a. あんたは、そのやくそくをわすれてしまったのですか。
 b. 吉川さんは、美しい白鳥のすがたに、すっかり見とれてしまいました。
- (6) a. 頭の中では「にげちゃいけない。あやまらなきゃいけない。」と思いながら、足のほうは、
 どんどん先へ走ってしまいました。
 b. 「ラスル、とんでもない所へ来てしまったな。」 吉川(1971:pp.246, 248)

吉川(1971)에서 지적하고 있는 「~てしまう」의 동작의 무의지화의 기능은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자발적 상황의 「~てしまう」와 깊은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てしまう」의 무의지화 용법이 자발적 상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의미적 일치의 경우 「~てしまう」에 의해 전달되는 의미가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의지적 동작을 무의지적 동작으로 변화시키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2.2 森山(1988), 杉本(1991)

森山(1988)에서도 「~てしまう」에 동작의 의지성을 배제하고 무의지적 동작으로 변화시키는 용법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7) a. 私は太郎のカバンを汚した。
 b. 私は太郎のカバンを汚してしまった。 森山(1988:p.221)

(7a)에서는 가방을 일부러 더럽혔을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 (7b)에서는 「~てしまう」가 의지적인 동작을 무의지적인 동작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실패동작으로 해석된다고 서술하고 있다.³⁾

杉本(1991)에서는 森山(1988)에서 지적한 「~てしまう」의 무의지화 용법에 대하여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てしまう」가 실현상(모달리티적 의미)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동작을 무의지화하지 만 완결상(아스펙트적 의미)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동작을 무의지화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 (8),(9)에서는 실현상을 나타내므로 동작의 무의지화가 일어났으나 (10),(11)에서는 완결상을 나타내므로 동작의 무의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 (8) 会社側は不正を認めてしまった。(실현상)
 (9) 財布を落としてしまった。(실현상)
 (10) この本を読んでしまった。(완결상)
 (11) 洋服の汚れを落としてしまった。(완결상) 杉本(1991:p.118)

吉川(1971), 森山(1988), 杉本(1991)에서 서술하고 있는 동작의 무의지화의 기능은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자발적 상황의 「~てしまう」와 깊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자발적 상황이란 주어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동작의 무의지화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吉川(1971), 森山(1988), 杉本(1991)의 동작의 무의지화와 본 논문의 자발적 상황은 의미적으로나 구문적으로 구별되는 점이 존재한다. 동작의 무의지화는 「夕形」으로 표현되며 완료된 일회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반면 자발적 상황은 「ル形」으로 표현되며 반복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ル形」의 「~てしまう」가 나타내는 자발적 상황에 대하여 그 의미적 특징과 구문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3) 安·池(2017)에서도 「~てしまう」가 동사의 타동성을 약화시킴으로써 「타동사+てしまう」에 뜻하지 않은 행위에 의해 유발된 실수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 예에서와 같이 화자의 실수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일본어 모어화자들은 실수 상황에 대한 미안함이나 책임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타동사(割る)+てしまう」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이유로는 「자동사(割れる)+てしまう」로 표현할 경우 마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어감이 동반하기 때문에 청자에게 불유쾌한 감정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 諦めた野上はお礼を言って受話器を置き、深呼吸した後、エイターとばかりにパソコンの電源スイッチを切り、走るようにして部長室を出た。その際、部長室に飾ってあった高価なフランス製の陶器の絵皿を落として割ってしまった。(安·池(2017):p.226)

3.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는 「~てしまう」의 의미적 특징

자발(自發)이란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다. 寺村(1982)에서는 자발에 대하여 다음 (12)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12) あるもの(X)が、自然に、ひとりである状態を帯びる、あるいはあるXを対象とする現象が自然におきる。 寺村(1982:p.271)

본 연구에서는 寺村(1982)의 정의를 토대로 '저절로 어떠한 사태(행위와 상태를 포함함)가 발생하는 것을 자발적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てしまう」에 이와 같은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하 「~てしまう」에 의한 자발적 상황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고 동사의 종류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3.1 비의도적 행위의 발생 : 의지동사+てしまう

다음 (13)-(20)은 의지적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 「~てしまう」가 접속하여 그와 같은 동작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된다는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てしまう」는 의지적 동작의 의지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동작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13) お腹が空いてないけど、何だか口寂しいとかの理由で、なんとなく食べてしまう。=(3a)
 (14) 今回は「知らず知らずのうちにやってしまう職場でのNG行動」をご紹介しますので、イメージダウンを防ぐ為にも、今一度自分の態度を見直してみてください。「Y」
 (15) 悪趣味だとは思いつつも、私はつい彼らの会話に耳を澄ませてしまう。「K」
 (16) 親は自分の子供に対しては、どうしても安定志向に陥ってしまうようだ。「K」
 (17) 何回か違う観葉植物を買ったのですが、うまく育てられません。すぐに枯らしてしまうのです。「K」
 (18) 無踏運動というのは、体が自分の意志がないのに動いてしまう運動の一つを指します。「Y」
 (19) カレー味のおかげで、嫌いな野菜も気づかず完食してしまうかも。「Y」
 (20) DVDを繰り返し見るうちに、自然と英語を暗記してしまうようです! 「Y」

(13)에서는 먹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먹게 된다는 상황을, (14)에서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상황을, (15)에서는 저절로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상황을 나타낸다. (16)의 「陥る」는 의지동사는 아니지만 「安定志向に陥る」라는 사태가 주어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사태이므로 동사구 전체에는 의지성이 인정되며 「~てしまう」에 의해서 주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안정지향으로 빠지게 된다는 상황을 나타낸다. (17)-(20)에서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식물을 말려 죽이게 된다는 상황, 저절로 몸이 움직인다는 상황,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게 된다는 상황, 영어를 저절로 암기하게 된다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예에서 「~てしまう」는 동작의 의지성을 약화시켜 주어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저절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는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森山(1988)에서는 「~てしまう」

의 무의지화 기능은 해당 동작을 실패동작으로 해석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13)-(20)을 살펴보면 (17)의 「枯らしてしまふ」에서만 실패동작의 해석이 가능하며 나머지의 예에서는 그와 같은 해석이 성립하기 어렵다. (19)의 「完食してしまふ」, (20)의 「暗記してしまふ」에서는 반대로 성공적인 동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13),(14),(15)에서는 실패동작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유감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6),(18),(19),(20)에서는 자발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느껴지지 않으므로 실패동작이라는 해석이나 유감의 태도는 문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3)-(20)에서의 자발적 상황이 일회적인 상황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또한 (18),(19),(20)에서와 같이 주어와 불특정 다수의 경우 자발적 상황과 함께 대상의 성질을 서술하는 의미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18)에서는 「無踏運動」의 성질, (19)에서는 요리의 성질, (20)에서는 「DVD」의 성질을 서술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반복성, 습관성과 대상의 성질을 서술하는 의미적 특징은 「~てしまふ」가 「ル形」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 점에 대해서는 4.2절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てしまふ」가 나타내는 자발적 상황에서 해당 동작이 주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물론 해당 동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어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특히 해당 동작이 순간적인 동작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13)의 「食べてしまふ」, (14)의 「やってしまふ」, (15)의 「耳を澄ませてしまふ」, (19)의 「完食してしまふ」에서 주어와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주어와 해당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중요한 의미적 특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발적 상황의 의미적 특징을 ‘비의도적 행위의 발생’이라고 설명하고자 한다.

3.2 비의도적 상태의 발생 : 무의지동사(감정, 감각, 사고)+てしまふ

다음 (21)-(27)은 감정동사, 감각동사, 사고동사에 「~てしまふ」가 접속하여 의도하였던 것은 아닌데 저절로 그와 같은 감정, 감각, 사고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4)감정동사, 감각동사, 사고동사는 조동사 「れる・られる」로도 자발적 상황을 나타낼 수 있듯이 의미적으로 자발적 상황과 가장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1) 自炊をするとき、どうしても悩んでしまふのが献立メニュー。 「Y」
 (22) 親も人間で感情のある生き物なので、子どもには理性的に接しようと思っても、つい感情的に怒ってしまふ。 「Y」
 (23) 何度も顔を合わせているうちに好意を持ってしまふ。 「Y」
 (24) 毎年のようにやってくる年末調整…結婚して20年以上たつのに、毎年なんだかんだ慌ててしまふ。 「K」
 (25) 不機嫌なら、些細なことでもイライラしてしまいます。 「Y」
 (26) 何を着るか迷ってしまふ。服選びにストレスを感じる人は多いみたい。 「Y」
 (27) 「一年は頑張ろう」と自分に言い聞かせて過ごしてきたが、どうしても日本の家族を思い出してしまふ。 「K」

4) 사고동사 중에는 의지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동사(예: 「考える」)도 있으나 편의상 사고동사도 무의지동사에 포함시킨다.

(21)에서는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식사 메뉴를 고민하게 된다는 상황, (22)에서는 의도하지 않아도 화를 내게 된다는 상황, (23)에서는 호감을 갖게 된다는 상황, (24)에서는 당황하게 된다는 상황을 나타낸다. 또한 (25)에서는 짜증이 나게 된다는 상황, (26)에서는 망설이게 된다는 상황, (27)에서는 떠올리게 된다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21)-(27)은 吉川(1971)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미적 일치의 예이다. 즉, 무의지적 동작에 「~てしまう」가 접속하기 때문에 「~てしまう」가 의지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어떠한 형식이 사용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의미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21)-(27)에서 「~てしまう」는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가? (21)-(27)에서는 주어가 그와 같은 감정, 감각, 사고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진다는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비의도적 상태의 발생’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자 한다.((27)의 「持つ」는 감정동사는 아니나 「好意を持つ」가 감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감정동사에 포함시킨다).

3.3 필연적 결과의 발생 : 무의지동사+てしまう

다음 (28)-(33)은 무의지동사에 「~てしまう」가 접속하는 경우이며 유정물의 동작과 무정물의 움직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의지적 동작에 「~てしまう」가 접속하면 어떠한 의미적 특징이 나타나는가?

- (28) パソコンでいろいろ作業していると、操作を間違ってしまう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3b)
 (29) 若くても、悪玉菌が増える生活をしていると、腸はどんどん老化してしま「K」うんですよ。
 (30) 冷房や紫外線の下にいますと、肌は思いのほか乾燥してしま「K」うもの。
 (31) 地平線や水平線などが傾いていると、見た感じに落ち着きがなく、バランスの悪い写真となてしまう。「K」
 (32) 友達に嫌われるのが怖くて「ノー」と言えないことで、後々トラブルに発展してしま「K」う。
 (33) 骨粗鬆症の人の骨はたいへんもろく、ちょっと転んただけで骨折してしまうことがある。「K」

(28)에서는 조작을 실수하게 된다는 상황, (29)에서는 장이 노화된다는 상황, (30)에서는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상황, (31)에서는 균형이 잡히지 않은 사진이 된다는 상황, (32)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상황, (33)에서는 골절한다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예에서 「~てしまう」는 어떠한 조건이 제시되거나 원인이 제공되는 경우 그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인과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필연적 결과의 발생은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사태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일반적인 사태라는 의미적 특징이 동반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본 연구에서는 ‘필연적 결과의 발생’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てしまう」가 필연적 결과의 발생을 나타내는 경우 조건문(「と」)과 호응하는 경우가 다수 관찰된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은 필연적 결과의 발생이라는 의미가 「と」 조건문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と」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자발적 상황은 「~てしまう」에 의해 표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연적 결과의 발생’이라는 의미는 위에서 살펴본 ‘비의도적 행위의 발생’과 ‘비의도적 상태의 발생’과는 의미적으로 다른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원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그와 같은 사태에 자연스럽게 도달한다고 하

는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통한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てしまう」가 나타내는 자발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 (34) 「~てしまう」가 나타내는 자발적 상황이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어떠한 사태 혹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와 같은 자발적 상황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며 일반적이라는 의미적 특징을 나타낸다.

4.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는 「~てしまう」의 구문적 특징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는 「~てしまう」에는 다음과 같은 구문적 특징이 관찰된다. 첫째 동사의 종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둘째 「ル形」이 사용된다는 점, 셋째 특정 부사와 호응을 이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하 이와 같은 구문적 특징을 살펴보고 의미적 특징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4.1 동사의 종류의 다양성

현대일본어에서는 자발적 상황을 다음 (35)와 같이 조동사 「れる・られる」로 나타낼 수 있다(이하 편의상 「ラレル自発」로 칭하기로 한다).

- (35) 昔のことが思い出される。

그러나 「ラレル自発」은 주로 감정동사, 감각동사, 사고동사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森山(1988)에서는 다음 (36), (37)과 같이 「ラレル自発」로 나타낼 수 있는 동사와 그렇지 않은 동사들을 제시하였다.

- (36) 「ラレル自発」이 가능한 동사
 思考動詞 考える 判断する 思う 認める, 一 望む 願う 興味を持つ 推論する
 納得する 承服する 思い出す
 感情動詞 悲しむ 懐かしむ 嘆く 期待する 急ぐ
 感覚動詞 感じる
- (37) 「ラレル自発」이 불가능한 동사
 ガル動詞 懐かしがる おもしろがる
 感情動詞 怒る 喜ぶ 憎む 困る 慌てる 愛する 諦める 祝う 飽きる
 腹が立つ 嫌う 気にさわる 慣れる 悩む 心が晴れる 迷う
 のぼせる 楽しむ
 感覚動詞 のどが渴く 痛む 疲れる しぶれる 「どきどきする」等の「~する」

森山(1988)p.130

「ラレル自発」과는 달리 「~てしまう」가 나타내는 자발적 상황은 동사의 종류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관찰된다.

- (38) 「不安なことを考えないようにしよう」「気にしないようにしよう」って思っても考えてしまう。
「Y」
- (39) 丹地先生の作品を見ていると、まず写真を見てタイトルを読んだとき「ああ、なるほど」と妙に納得してしまいます。「K」
- (40) 機嫌が悪いときは枠がグッと狭くなり、普段なら笑ってやり過ごせることでも腹が立ってしまう。「Y」
- (41) 子供に限らず、大人も思わず楽しんでしまうのが動物園。「Y」
- (42) 初心者は海に入る前からサーフボードの重さで疲れてしまうから、とにかく海から近いところでボードをレンタルすることが重要。「K」

(38)~(42)를 살펴보면 「ラレル自発」이 가능한 (36)의 동사와 「ラレル自発」이 불가능한 (37)의 동사 모두가 「~てしまう」로는 자발적 상황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절에서 살펴본것듯이 감정동사, 감각동사, 사고동사 이외의 동사도 「~てしまう」로 자발적 상황을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てしまう」구문은 「ラレル自発」과는 달리 매우 생산적으로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는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4.2 「ル形」과 반복상

「~てしまう」가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 「ル形」이 사용된다는 구문적 특징이 관찰된다. 자발적 상황은 「ル形」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현대일본어의 비과거형인 「ル形」이 현재의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용법을 들 수 있다.

- (43) a. あっ、だれか来る。(발화현장에 밀착한 용법)
b. 田中は、月に一度、この美術館を訪れる。(반복을 나타내는 용법)
c. この箱はふたが簡単に開く。(성질을 나타내는 용법)

現代日本語文法3(2007:p.22)

「ル形」의 반복을 나타내는 용법은 「~てしまう」가 나타내는 자발적 상황이 반복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사실과 직결된다. 예를 들면 다음 (44)의 무리를 하게 된다는 사태와 (45)의 연락을 기다리게 된다는 사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사태라는 의미적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ル形」에 의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 (44) 「絶対に逃げない」という考え方は、それによって自分を追い詰めてしまう危険をはらんでいる。
逃げ場がないと思うから、どうしても無理をしてしまう。「Y」
- (45) 仲が悪くなってしまった相手からの連絡を待ってしまう自分がいます。これって未練があるんですかね? 「Y」

반복적, 습관적 상황이라는 의미적 특징은 「夕形」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명확해진다.

- (46) a. 逃げ場がないと思うから、どうしても無理をしてしまった。
 b. 仲が悪くなってしまった相手からの連絡を待ってしまった。

(46)에서는 「~てしまう」에 의해서 무의지화는 일어나고 있으나 「夕形」이므로 사태가 일회적으로 완료된 것을 나타내며 완료된 사태에 대한 후회 혹은 유감의 태도가 느껴진다. 「夕形」은 사태가 실현된 것을 나타내며 일단 실현된 사태는 어떠한 형태로든 화자의 사태 실현에 대한 심적 태도가 수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ル形」의 대상의 성질을 서술하는 용법은 「~てしまう」에 의한 자발적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관찰된다. 다음 (47),(48)에서는 각각 「首ウォーマー」 「DVD」의 성질을 서술하는 의미가 동반된다.

- (47) ぐっすり熟睡してしまう首ウォーマー。「Y」
 (48) DVDを繰り返し見るうちに、自然と英語を暗記してしまうようです! (=20)

4.3 특정 부사와의 호응관계

「~てしまう」가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 특정 부사와 호응을 이루는 경우가 다수 관찰된다. 다음 (49)-(53)을 보면 「つい」「どうしても」「思わず」「なんとなく」「自然に(自然と)」 등 주어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사와 호응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 (49) ちゃんとやろうと思っていても、ついやってしまうのが「失敗」である。「K」
 (50) 疲れやストレスがたまると、どうしても感情的になってしまう。「Y」
 (51) 街頭にあると、思わず見てしまう広告の数々。「Y」
 (52) TVで紹介されると、なんとなく食べに行ってしまう懐かしさの漂うラーメン店。「Y」
 (53) 受講後は自然に笑顔が溢れてしまう。「Y」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사의 의미적 특징이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다음 (54)-(58)과 같이 (49)-(53)의 예에서 부사의 수식을 제외해도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부사의 호응이 필수적 조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54) ちゃんとやろうと思っていても、やってしまうのが「失敗」である。
 (55) 疲れやストレスがたまると、感情的になってしまう。
 (56) 街頭にあると、見てしまう広告の数々。
 (57) TVで紹介されると、食べに行ってしまう懐かしさの漂うラーメン店。
 (58) 受講後は笑顔が溢れてしまう。

그러나 부사구와의 호응은 자발적 상황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49),(50)에서와 같이 「つい」「どうしても」와 같은 부사는 주어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

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며, (51),(52),(53)에서와 같이 「思わず」「なんとなく」「自然に」와 같은 부사는 주어가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5. 자발적 상황과 아스펙트 및 모달리티적 의미와의 관련

「~てしまう」의 자발적 상황의 용법은 「~てしまう」의 아스펙트적 의미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모달리티적 의미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먼저 아스펙트적 의미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てしまう」의 아스펙트적 의미에는 「完了」와 「実現」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인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實現」의 의미와의 관련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金田一(1954)에서는 「~てしまう」의 아스펙트적 의미로 「終結態(完了)」와 「既現態(實現)」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終結態」란 「ある動作・作用が完全に行われる」「完了する」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며 「既現態」란 「その動作・作用がかりそめでなく本当に行われる」「その動作・作用が實現する」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서술하고 있다. 高橋(1969)에서도 「實現(過程のおわりとしておこなわれる動作が實現する)」의 의미를 인정하고 있다. 즉 「實現」이란 어떠한 사태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9) a. 一冊の本を五分で読んでしまう。 「終結態」
 b. 電気が消えてしまう。 「既現態」 金田一(1954:pp.48-49)

자발적 상황이란 어떠한 동작이나 작용이 시작되어 완료될 때까지의 과정에 초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는 상황에 초점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實現」의 의미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てしまう」의 모달리티적 의미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てしまう」가 나타내는 '비의도적 행위의 발생', '비의도적 상태의 발생', '필연적 결과의 발생'이라는 의미적 특징은 모두 의도하지 않은 사태의 발생이라는 공통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의미는 高橋(1969)의 「期待外」, 杉本(1991)의 「予想外」와 같은 「~てしまう」의 모달리티적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ラレル自発」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60) 今後, より実践的な運動を対象とした脳機能研究が待たれる。 「K」
 (61) 切れ切りに昔のいろんなことが思い出される。 「K」
 (62) 駄目って分かっているけど待ってしまう結果発表。 「K」
 (63) 無力感が心の底でぐるぐると渦巻いていた。こうしていると、一昨日のことを思い出してしまう。 「Y」

(60),(61)의 「ラレル自発」에서는 자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어떠한 형태의 평가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지 않은 반면 (62),(63)에서는 자발적 상황에 대하여 의도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느껴진다. 이와 같은 의미는 「~てしまう」의 모달리티적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てしまう」에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음을 주장하고 그 의미적 특징과 구문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てしまう」가 나타내는 자발적 상황이란 주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자발적 상황은 반복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라는 의미적 특징을 갖는다. 「~てしまう」가 나타내는 자발적 상황의 유형은 접속하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의지동사에 접속하는 경우로 「~てしまう」에 의해 의지성이 약화되어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와 같은 동작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는 감정동사, 감각동사, 사고동사와 같은 무의지동사에 접속하여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와 같은 감정, 감각, 사고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는 무의지동사에 접속하여 어떠한 조건이 제시되거나 원인이 제공되는 경우 그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てしまう」가 나타내는 자발적 상황의 구문적 특징은 첫째, 동사의 종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생산적인 형식이라는 것이다. 둘째, 「ル形」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ル形」의 사용은 해당 자발적 상황이 반복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라는 의미적 특징과 대상의 성질을 서술하는 의미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 셋째, 특정 부사와의 호응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부사의 수식이 자발적 상황을 나타내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나 자발적 상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상과 같은 「~てしまう」의 자발적 상황의 용법은 「~てしまう」의 아스펙트적인 의미인 「완료」와 「실현」 중 「실현」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발적 상황이란 어떠한 동작이나 작용이 시작되어 완료될 때까지의 과정에 초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는 상황에 초점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사태가 실제로 발생함을 나타내는 「실현」의 의미와의 관련성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모달리티적 측면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てしまう」가 나타내는 「비의도적 행위의 발생」, 「비의도적 상태의 발생」, 「필연적 결과의 발생」이라는 의미적 특징은 모두 의도하지 않았다는 공통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의미는 「~てしまう」의 「期待外」 「予想外」와 같은 모달리티적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安平鎬·池好順(2017) 「「自動詞+てしまう」와 「他動詞+てしまう」의 語用論的 쓰임의 차이에 대해서- 한국어 母語話者에 대한 일본어교육적인 관점에서-」 『日本学』 45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225-249
- 井上和子(1976) 『変形文法と日本語(下)』 大修館書店
- 金田一春彦(1954) 「日本語動詞のテンスとアスペクト」 金田一春彦(編) 『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むぎ書房 pp.28-61
- 杉本武(1991) 「「てしまう」におけるアスペクトとモダリティ」 『九州工業大学情報工学部紀要』 人文・社会学編4 九州工業大学 pp.109-126
- 鈴木智美(1998) 「「~てしまう」の意味」 『日本語教育』 97号 日本語教育学会 pp.48-59
- 高橋太郎(1969) 「すがたともくろみ」 金田一春彦(編)(1976) 『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むぎ書房 pp.119-148

- 寺村秀夫(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Ⅰ』くろしお出版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くろしお出版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7) 『現代日本語文法3』くろしお出版
藤井由美(1992) 「「してしまう」の意味」 『ことばの科学5』むぎ書房 pp.17-40
森山卓郎(1988) 『日本語動詞述語文の研究』明治書院
吉川武時(1971) 「現代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の研究」 金田一春彦(編)(1976) むぎ書房 pp.228-254

〈 要 旨 〉

自発的状况を表す「～てしまう」

本稿では、「～てしまう」に自発的状况を表す用法があることを主張し、その意味的特徴と構文的特徴を明らかにする。「～てしまう」が表す自発的状况とは、主語の意図していない事態が自然に発生する状況を指す。このような自発的状况は反復的にそして習慣的に起こるという意味的特徴を持つ。「～てしまう」によって表される自発的状况は接続する動詞の種類によって3つのタイプに分けられる。一つは意志動詞に接続するタイプで、「～てしまう」によって動詞の意志性が弱まり、主語の行為が非意図的なものであるという状況を表すものである。二つは、感情動詞、感覚動詞、思考動詞などの非意志動詞に接続するタイプで、「～てしまう」によって主語が非意図的な状態に陥るという状況を表すものである。三つは、非意志動詞に接続するタイプで、「～てしまう」によって必然的な結果が生じるという状況を表すものである。自発的状况を表す「～てしまう」には3つの構文的特徴が見られる。一つは、動詞の種類に制約が見られ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二つは、主に「ル形」で使われるということである。三つは、特定の副詞との共起が見られるということである。

論文分野：統語論

キーワード：～てしまう、自発的状况、非意図的の行為、非意図的の状態、必然的结果

■ 김희성(金熹成)

광운대학교 강사

kimhshello@hotmail.com

■投稿日	:	2020년	1월	15일
■審査開始	:	2020년	2월	5일
■審査完了	:	2020년	2월	19일
■掲載確定	:	2020년	2월	19일